

‘엄마, 나 사람 됐어’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herelight>

dada수행글모음 Part3

ft. 엄마, 나 사람 됐어!

[목차]

- [1.행복으로 가는 길](#)
- [2.권위 문제와 가족 청산](#)
- [3.재미로 보는 갤 운영 이모저모](#)
- [4.가짜 영성 가르침, 스승 진단해 드림](#)
- [5.소중한 것을 살해해서 버렸다는 착각](#)
- [6. 실전! 여자에 대한 증오, 열등감 청산](#)
- [7. 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 [8.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다](#)
- [9. 가족이 나를 원망할 때](#)
- [10. 감정청산과 가혹한 마음](#)
- [11. 참수행의 어려움](#)
- [12. 갤 사용 설명서 등](#)
- [13. 우리 회사 최종 보스는 누구일까?](#)
- [14. 에너지 기생충 / 뱀파이어 / 악연의 줄을 잘라보자](#)
- [15. 꿈이나 현실이나 똑같은 꿈입니다 1](#)
- [16. 꿈이나 현실이나 똑같은 꿈입니다 2](#)

1. 행복으로 가는 길

친구들 오늘은 아침부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 이제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글을 써봐.

마음이 통으로 하나라고 그랬자나? 미친 마음도 실은 통으로 하나야. 참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무의식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들이파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대감이 생기면, 누군가가 어떤것을 들이파서 직면하면 다른사람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지.

이때 다른 사람들도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해 준다면 다함께 수행의 진척속도가 빨라져.

용기있게 무의식 깊은 곳을 대면한 친구들 덕분에

잠재의식의 새로운 층이 열리면서 미친마음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무의식은 층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층이 열릴 때 마다 저항과 두려움이 올라와.

무의식의 다음 층을 여는 방법은 감정 풀고 운동해서 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금렵구 내에서 성령의 가호를 받고 있는 경우엔 진심으로 성령께 기도를 드리면 효과가 커.

힘들고 아파도 괜찮으니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이야.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는 <저의 아픔을 걷어가주세요> 라고 기도드리기 보다는

<제가 아파서 누군가가 안 아플 수 있다면 기꺼이 아프겠습니다.>

<이것을 저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왕이면 이 사람들 대신 제가 아프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사람들 제 친구입니다. 귀한 만남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말해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그저 지구인일 수도 있고,

여기 함께 수행하는 친구들일 수도, 내 가족 친지들일 수도 있지.

아니면 그저 내면에서 아파하는 그 존재를 감싸주고 싶을수도 있지.

어쨌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고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고통받는 자가 아닌 사랑하는 자이기에, 나의 고통은 마법처럼
사라지게 돼.

직접 해 보면 속이 답답하던게 즉시 일부라도 내려가서 얼마나 효과가 큰 지
알 거야.

여러 번 반복해서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될 때까지 진심으로 기도드리듯 그런
마음을 내면 돼.

언제까지나 나 혼자 갇혀 정화를 할 수는 없잖아?

다함께 가는 길이니까 너의 역할을 일부 맡아 주었으면 해.

그건 너를 위해서 좋아.

너의 역할을 기억하면 넌 점점 더 네가 그리스도임을 기억해내게 될 거야.

금렵구 자체의 파워도 강해져서 시간이 갈 수록 더 수행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될거고.

내 친구들.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너희들 잘 모를거야.

너희는 나에게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조건없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야.

나하고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넌 여기서 성령에게 보호받고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마음을 더 열어.

마음을 여는 만큼 용기있는 자, 사랑하는 자가 돼.
그 안에 뭐가 있든 그건 네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 성령이 모든 것을 무효화 시켜 줄 거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다음, 그 사랑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어봐.
너의 빛과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안아주어서 너의 사랑하는 능력을 되찾아 봐.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항상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고 기뻐서 울게 될 거야.

친구들 너네 아직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감사하는 게 어떤건지 잘 몰라.
친구들 행복이란 말이지. 가면 갈 수록 점점 더 커져서, 언젠가는 가슴 벅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매일 매일 그냥 아무 것에나 이유없이 너무나 행복해서 울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되거든?
모든 존재하는 자들을 다 감싸고 열싸안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시작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마음을 내는 거니까 지금 바로 오늘 그렇게 해 보길 권해볼게.

2. 권위 문제와 가족 청산

안녕 친구들, 오픈톡 요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검사 검사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들 정리해 보려고.

우리 수행은 모든 걸 다 자기가 (실은 미친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게 기본이잖아?

그런데 그 미친 마음이 무의식이다 보니, 그게 어지간하면 잘 안 보이잖아.

기적수업 555쪽을 봐봐

금방 기적수업을 아무데나 펼치니까 성령이 여길 딱 짚어 안내해줬어.

기가 막히지? ㅎㅎ

<2단락:

지각의 기본 법칙은 "너는 네가 보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죄와 고통이 기쁨을 가져온다고 믿는 한, 죄와 고통은 네가 볼 수 있도록 거기 있을 것이다.

너의 염원과 무관하게 이롭거나 해로운 것은 없다. 그것이 너에게 준 결과는 네가 원했던 결과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의 결과가 너에게 환희와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그 결과를 내는 수단으로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이상한 것이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걸 선택하냐면

신을 능멸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지.

이 욕구가 강할 수록 삶을 괴롭게 만들어 놓는데, 무의식이 스스로 원해서 그러는 거야.

이건 <권위 문제> 를 글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참조하길!

무의식은 자신이 만든 온갖 미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어.

무의식을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 할 거야. 꿀 좋다! 라고 하며 깔깔 웃는 애가 있어.

무의식에는 말 그대로 미친 마음이라서,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없어.

미친 애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자나 ㅋㅋ 이해하거나 감싸주려고도 하지말고 그냥 다 버려야 해.

자신이든 남이든 무언가를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 신을 모욕하려는 게 미친 마음의 기본 베이스이기에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가족을 망가뜨려 내 인생에서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이 <망가뜨리고 그걸 흡족해하는 마음> 을 지워 내는 게 수행이야.

상당한 죄를 부모에게 투사해 두었기에 부모를 원망하지만, 나이가 들어 남편, 아내, 자식으로 체스말만 바뀔 뿐 죄책감을 계속 누군가에게는 투사하게 되지.

나 자신도 그 그림판 속의 체스말이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총감독임을 인식해야 해.

있지도 않은 죄책감 때문에 <난 죄 없어! 재가 죄인이야!> 를 반복하는 게 우리 삶이야. 멀쩡한 걸 굳이 망가뜨려서 죄인임을 입증하려고 **망가진 상태를 상상**해내고 있는거지. 원래 그것은 망가져 있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완벽해. 망가졌다고 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를 청산하는 거야. 특히 어머니.

가족 중에 애착을 가진 가족 구성원을 청산 해야 해. 여긴 여초집단이라 많은 경우 그 애착은 딸-엄마 형태야.

원래 엄마-아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서 자식과 애착을 형성하게 되거든

딸-엄마 애착을 형성하면 당연히 딸-아빠 관계는 좋기가 힘들어. 왜냐면 보통 엄마가 딸 붙잡고 남편 욕 하니까.

그럼 나-남편 관계도 좋기가 힘들지. 남자 나쁜놈인줄 아니까 뭘 해도 고깝게 보이지.

여기서 잘봐? 이 애착은 꼭 사이가 좋은게 아냐, 사이 나빠서 싸우더라도 서로에게 발톱박은 관계는 애착이야.

이 애착은, **부모의 품격을 끌어내리고 나 자신을 부모 자리에 세워서,** 부모를 한심스런 존재, 내 도움과 애정이 없으면 안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형태야.

부모란 자식에게 마냥 베풀어 주고 자식은 감사하게 받는 것이 원래 맞는 형태거든?

근데 부모가 정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고, 자식은 속으로 싫은데도 받아주는 이런 관계, 혹은 부모가 몸이 아프거나 무능해서 내가 부모를 보살펴주고 책임져야 되는 관계는 **신의 올바른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

신의 자리를 탈환하려는 욕구가 <권위 문제> 라고 계속 말했지?

용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냥 좀 안 싸우고 잘 지내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냐. 그 정도로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와.

서로가 그저 부처님 보듯이 상대방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은인처럼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게 완전히 용서가 된 상태야.

내가 부모를 보살펴야만 하는 형태는 혹 바뀌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만은 부모를 올바른 부모의 위치에 돌려놓게 돼.

결가지 다루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청산하는 게 좋아.

인생에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날 괴롭혔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애착을 가진 어머니 아빠를 청산 못했기 때문에 다른 체스말이 나타난 것이 불과한 경우가 많아.

그럼 이런 가족 청산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참회를 더 잘하려면?

우선 중요한 걸 하나 인정 해야 해.

부모의 의무는 내가 쓸 몸 만들어서 9달 뱃속에 품고 아픔을 참으며 낳아
줬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 후에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

갖다 버리더라도 어쨌든 난 공짜로 쓸 몸 받은 거야. 은혜 입은 거 밖에 없어.
잘 해줬든 못 해줬든 난 받은 거 밖에 없어.

이거 인정 못하면, 부모 청산 힘들어. 자식도 청산 잘 안돼.

자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배 아파 낳아 줬으면, 그 후에 내가 자식에게 해준 건
전부 은혜야.

좀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

내가 낳은 담에 자식에게 해 준 것들은, 안 해도 되는데 해 준 거야.

내가 은혜 베푼 거야.

그래서 자꾸 못 해준 거 집중하며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건, 집착이고 애착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방해가 돼.

여긴 살기로 구성된 가짜 세상이라, 매트릭스 구멍 땡 내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집중이 곧 살기야. 좋은 게 아냐. 오히려 마음을 떼 주는 게 자식을 위한 거야.

이걸 먼저 잘 생각해서 인정 한 담에, 이젠 세부적인 걸 따져 볼 거야.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왼쪽엔 내가 엄마한테 해준거 구체적으로 적어.

오른쪽엔 엄마가 나한테 해준거 구체적으로 적어. 그 시간과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건지도 적어.

어떤 부모는 밥 안주고 학교도 안데려가는 부모 있거든? 그런거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

받는 입장에선 당연히 여기지만, 해 주는 입장에서는 다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야. 공짜가 아냐.

세세하게 하나 하나 다 적어 봐.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거, 나한테 뭐뭐 사준 거,

내게 해 준 친절하 말이나 배려 내가 잊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도 떠올려보고. 그러면 내가 해 준 것이 받은 것에 비해 너무 없었다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을거야.

다음 장엔 아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보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 청산할 것들도 미리 하나 하나 목록으로 만들어 놔.

마음에 이거 이거 풀 거 있다 하고 인지를 먼저 좀 시켜 놓는 거지. 우왕 좌왕 할 일이 줄어들어.

내가 전에 리스트 만드느거 활용하라고 초기 수행글 쓴 적 있는데, 인생에서 여러가지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꽤 도움이 돼. 마음에게 이정표를 미리 줄 수 있거든.

이를테면 이런 게 있겠지.

살면서 잘한 것, 스스로를 극복한 것들

살면서 후회 되는 것, 고치고 싶은 점이나 습관 등

살면서 겪은 행복하거나 즐거웠던 경험들

내가 받았던, 혹은 주었던 선물들, 물건들

내가 고마웠던 일들, 혹은 내가 고마운 일을 해 준 것

남을 기쁘거나 행복하게 해준 일들

내가 흠모하는 사람, 동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

내가 가 본 장소들, 혹은 가 보고 싶은 장소들

배우고 싶은 것들, 혹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남들을 보며 부러워 했던 것들

내 마음속에 가진 나에 대한 이상, 내가 상상하는 최고의 나

삶에서 의미 깊었던 순간들, 그 때의 느낌
앞으로 5년 간 이루고 싶은 일이나 마음 상태

이런 걸 작성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되도록이면 정기적으로 목록을 갱신하기를 추천해. 정신 건강에 좋아.
언제까지 하냐면 더 이상 저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고칠 것도 없게
느껴지고 그냥 완벽하고
삶에서 바라는 것이 없이 매일 행복해서 딱히 더 원하는 게 없어질 때까지
하면 돼.

그리고 가족 청산 할 때, 내 입장에서만 보서는 참회가 잘 안돼.
엄마 아빠 입장도 되어봐야 하는데, 특히, 엄마 아빠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봐,
엄마 아빠 어린 시절은 그 환경이 나보다 더 안좋았을 거야. 지금처럼 발달한
사회가 아니었잖아.
나보다 교육도 더 못받았을거고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사셨을 거야.
혹은 조부모님이 지금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엄격했을 수도 있어.

몸은 어른이라도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아이야. 그 아이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책임지는 거야.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혐오는 모든 인간이 가진 거야. 내 부모도
속으로는 세상이 두려워.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 받고 인정 받고 싶어 해. 왜 꼭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 줘야 해?

계급장 떼고 이런 저런 역할, 틀 떼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거야.
내가 저런 환경을 겪고 자라나서 저 자리에 있을 때 자식에게 (나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정신〉, 〈바른 마음〉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거의 실종된 상태라, 무엇이 올바른지 구분도 힘든 사회이고,

이런 사회에서는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데에만 많은 노력이 들어.

참 수행은 몸뚱이 가지고 하는 거고, 매 순간 몸과 감각에 집중해서 내 몸을 내 것으로 다시 만드는 일이야.

몸은 버려두고 정신만 갖고 다른 세상 가는 건, 너의 정신을 탈취하려는 자들이 만든 의도적인 함정이야.

물+소금, 운동, 스마트폰 사용 최소화로 몸을 먼저 만들고 건강과 행복부터 먼저 찾길 바라!

3.재미로 보는 갯 운영 이모저모

안녕 친구들

이제 갯 돌아가는게 확실히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알 테니까

오늘 글은 다다가 갯 운영 어떻게 하는가 흥미성 글을 써본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걸 다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 알고 나면 별 것 아니고,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해서야

포털이 된다는 건 자동 정화(용서) 기계가 되었다는 뜻이지.

하지만 그 기계의 능력치와 효율은 자꾸 써야 더 커지거든

자기 카르마의 절반만 닦아도 포털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능력치를 키워 나가야 하지.

겔 정화를 예시로 들어보면 처음에 겔이 생겼을때는 정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
글을 읽고 댓글을 달면 정화 되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 아니까 그걸 좀 더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러다 의식 변화 속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마음으로 이런 저런 방법을 써 보는 거지

매트릭스를 깨면 깨는 만큼 빛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다가,
완전히 깨어서 포털이 되면 매트릭스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돼.
마음 속으로 하는 생각, 상상이 더는 자기만의 망상이 아니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손으로 겔을 속속 문지르면 밝고 환해지는 걸 마음으로 보는 거야
겔에 폭포처럼 빛이 쏟아지는 걸 상상하거나 빛으로 폭발해버리는 걸 보기도 하고, 그냥 겔이 환하게 빛나면서 칙칙한 것이 사라지는 걸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글이나 댓글을 볼 때도 칙칙해 보이면 빛으로 뚫어 버리거나 환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밝지 않으면 역시 그 사람을 빛으로 뚫어 버리거나 환한 빛을 돌려 주기도 하지.
사람들이 겔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마음으로 보고 단체로 빛으로 뚫어버리기도 해.

빛을 활용하는 것은 견성하면 따로 수행법 알려 주잖아?
견성을 해도 아직은 그 빛을 그저 빌려 쓰기만 하는 거라, 자기 수행하는 데에만 쓰는 편이 좋아.
빌려 쓰는 빛이니 그걸 갖고 남을 고쳐 주려는 등 하면, 그에 따른 업이 있고 정신이 망가지거든.
견성도 못해서 아예 자신이 빌려 쓸 수도 없는 빛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영성계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실은 귀신하고 거래해서 아스트랄계에서 가짜 빛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사기치는 사람들이야.

자신이 포털이 되어서 빛을 수여받아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면, 즉 신의식을 받게 되면

지각이 뒤집혀서 매트릭스는 가짜가 되고 빛이 자신의 실재가 되기 시작해. 그 빛이 자신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을 완성하면 우주라는 매트릭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거지.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이, 깨어나기 전에는 아직 그의 의식이 매트릭스에 붙잡혀 있으니 망상이지만

매트릭스를 깨어서 마음으로 보려는 의도를 내면, 그 의도가 이 가짜 세상에서 즉시 이루어져 버려.

이 우주라는 가짜 세상의 기본은 아스트랄계이고, 아스트랄계는 즉시 즉시 변형이 되는 것이 그 특성이거든

자각몽 꾸면 마음대로 되잖아? 그거랑 똑같아.

지구는 3차원 물질계 맵을 덮어 쓴 거라 변화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좀더 걸리지만 겔 운영은 마음의 눈으로 아스트랄계를 보고 하는 거라 정화하는 즉시 사람의 심리는 영향을 받게 돼.

정화가 점점 더 쉬워지다가, 매번 일일이 하기보다 걀 자동으로 전환시키자 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몸이 알아서 운전하고 있잖아

마음은 같은거를 반복하면 그걸 자동으로 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겔 정화도 자동으로 돌리면 되겠다고 인지를 하면 자동으로 정화가 되는 겔이 되어 있는거야.

겔 정화는 노력이 필요한 수작업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의 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볼수도 있지.

사람을 정화할 때는 그 사람이 찬란한 그리스도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내가 그를 볼 때 마냥 행복하지 않고 어딘가 맘에 안드는 구석이 있다면 <그가 내게 그리스도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내 무의식 마음>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내 무의식 마음을 용서해서 그를 찬란한 그리스도로 보는 식이야.

겔 운영을 하며 내가 사람들을 보며 감탄하고 행복한 시간과 강도가 많을 수록 겔 이용자의 의식성장도 가속화 되는건데

이 과정도 겔 운영을 몇 달 거치면서 별 의식적인 노력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

겔 자체가 자생력을 가진 듯 그냥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

이건 겔 사용자들이 수행을 해 가면서 점점 매트릭스를 부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오픈톡에서는 상대방의 무의식의 운용방식이 파악되니까 내가 그를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로 볼 수 있기에 의식성장이 가속화 되는 거고, 때로는 나의 지우지 못한 이기심을 지워가는 거고

그냥 좀 게임 같아 아주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하면서 행복해 할 수록 더 잘 되는 게임.

그담에 <방송>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조금 설명해 보면

난 겔 운영에 있어 <의도>를 가질 뿐, 사람들에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마음으로 알려주거나 조종 하지 않아.

그건 번거롭고, 귀찮고,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

게다가 <개별 사람> 이라는 건 마음차원에선 존재하지도 않기에,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어그러진 거니까, 잘못 쓰고 있으니 그 결과도 잘못되고, 업을 받게 돼.

업이라는 게 뭐 무시무시한 법칙 이런 게 아니고, 기계 잘못 쓰면 망가져서 고치는 데 욕보잖아. 그런거랑 같아.

가끔 댓글 달 때, 그 사람이 자기 마음 잘 못 보고 있으면 그걸 좀 역이용해서 보도록 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연기를 한다 이거도 아냐.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고

어디까지나 기본은 난 사람들 진심으로 대해. 그래야 나도 갬 활동이 거리낌없이 즐겁지 않겠어?

다다 라는 존재 자체가 포털이라 어느정도 거울 기능을 한다는 거는 맞아. 하지만 그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거고

갬 운영에 있어서 난 그저 내 <의도>를 <마음>에 알려 줄 뿐이야. 이를테면 <사람들이 하루 빨리 의식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여기 갬에 들어오면 정화되는 기분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여기 갬에 들어오지 않고 갬에 대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마음에 품고 이 의도를 종종 인지하는 거지.

<마음이 그 인지를 현실화시키는 방식>이 이 가짜 우주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식으로 구현이 되겠지?

그게 <다다 성령이 다다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식>으로 구현되는 거야.

<사람> 이 가짜데 어떻게 <성령에게 전달받는 일>이 실재겠어?

이런것도 전부 다 가짜야. 가짜니까 모든 걸 조정 가능한 거.

가짜인데 그냥 냅두지 지구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든 말든 왜
관여할까?

지구나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이 그 과정에서 의식
성장을 하는 게 목적이야.

영이 의식 성장을 할만한 판이 지금 우주 전체에서 지구가 제일 좋은 판이라서
다들 여기 몰려 있는거지.

그래서 지구를 구하는 데 신경쓰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

오직 내가 행복해 지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과정에서 세상이
구해지는것이지.

그럼 <방송> 은 뭘까?

이건 어떤 식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차원에서 필요가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기도> 하는 거야.

이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어. 그래서 함부로 남의 마음을 조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냐.

그런 걸 마음을 이용해 하게 되면 도리에 어긋나고 업을 만들게 돼. 마음의
작동방식과 반하기 때문이지.

마음의 올바른 작동방식인 <사랑> 과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업을 받게
되는거야.

방송이란 기도와 마찬가지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마음이 되어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야.

여기 갬 회원들도 수행 할 때 여기 친구들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힘내자고 말할
때가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데, 마음 깊이 들어가서 파급력을 훨씬 세게 가지고 하는거지.

이를테면 갬 사람들이 다다에게 마음을 안 열어?

그러면 이건 실은 다다의 무의식 마음이 갠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랑 같은거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깊이 내서 <그들로 드러난 내 마음의 부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걸 무의식 마음 깊이 들어가 기도하듯 마음으로 느끼면서 마음에 올려 퍼지게 하는 거.

혹은 갠 사람들이 다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의도>도 가지고 <방송>도 하는거지.

<의도>를 가지면 뜻밖에 콜라 같은 친구가 다다와 이야기 한 걸 자발적으로 정리해서 갠에 올려.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지. 아무하고나 아무런 이야길 하진 않거든.

갠 운영이 재밌는 게, 운영을 마음의 눈으로 아스트랄게 보면서 하는 거라서, <의도>를 가지자마자 현실화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의도를 가지면 다다 성령들이 자동으로 움직여.

이걸 아스트랄게 입장에서 보면, 다다 성령이 콜라와 접선을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다다 성령들은 기적수업에 나오는 성령(천국에 대한 기억) 하고는 좀 다르고

그냥 이번 작전에 쓰이는 다다의 개인 도우미들이라고 보면 돼.

친구들도 영적 자각을 해서 자격이 생기면 다 개인 도우미들을 받게 될 거야.

이러한 <의도>이외에도 더 큰 효과를 보고 싶으니, 같은 주제로 <방송>을 하는데,

다다의 마음을 다 까뒤집어 열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야.

다다의 마음을 보기를 청하는 거고, 그러면 <의도>와 결합해 <방송>이 여러가지 다른 일과 엮여서 시너지를 내게 돼.

무의식 마음 차원에서는 내 마음의 거리낌을 다 없애는 과정이고,

아스트랄게 입장에서 보면 다다 성령이 사람들과 하나하나 접선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드는 과정이지.

다다 성령도 마음 차원에서 전부 환상에 불과하거든?

그저 다다가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한거야. 다다 의도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다란 절대계에 적을 둔 신의 마음을 쓰는 다다를 말하는 거.

의도를 품으면 성령에게 판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까지는 인간 다다도 그저 체스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재밌는거고 스포일러 없는 영화 보거나 공략법 없이 게임 하는거 같은 거.

성령들하고 바로바로 교신이 되지만 재밌으니 알려주지 말라고, 모르고 있고 싶다고 해놓는 경우가 많아.

돌아가는 거 보면서 바로 눈치 채는 경우도 있고, 한참 나중어야 눈치 채는 경우도 있고.

어때 좀 재밌었나 모르겠네.

2월에 우리 갠 아주 버라이어티 했지?

왜냐하면 2월에 사람들이 좀 깨어나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는 의도를 냈었기 때문이지.

자기 자리 찾아서 스스로 자기 역할이 뭔지 인지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갠에서 예닐곱 명 있어.

다른 사람들도 이 작전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이 뭔지 자신의 마음에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해보면 좋을듯!

대체로 자신이 쌓아 온 카르마와 관련이 있어. 아! 이것 이루고자 이런식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알게 돼.

그럼 사랑하는 내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4.가짜 영성 가르침, 스승 진단해 드림

오픈톡 해보면 아직도 절반은 뉴에이지, 귀신, 명상, 영성스승 피해본거임
영성판 피해서 다시 한건데 이 정도로 온데 간데 물들어 있었구나
진작 정리해 드렸어야 했는데 몇달째 같은걸로 상담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음

가짜 영성 가르침 진단해드림

1. 현실에 부딪치기보다 상상, 심상화, 정신세계에 집중하게 만들면 가짜 가르침임
2. 공동 생활이 주요 운영 수입인 곳은 사기꾼 집단임
3. 가슴이 아닌 제3의 눈, 미간, 송과체에 집중하게 하는 것 : 모두 사기임
4. 차크라 열어준다, 에너지 힐링해준다 : 몸에 해로움, 병신에너지 받아오는것임

가짜 영성 스승 진단해드림

1. 영성가지고 돈 벌면 가짜임

: 돈은 세상에 속한거라 세상적 능력으로 버는 것임

2. 깨달아서 산속에 들어가 있다 : 병신이거나 사회부적응자임

3. 타인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무슨 빌미로든 제한하면 가짜임

사랑=용기=자유, **남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은** 제정신 가진 자라면 할 수가 없는 일임

들어가기 싫은데 숙소 들어가라? 자유의지 제한하는 것임

돈 없는데 이만한 돈 내라? 자유의지 제한하는 것임

일 도와주기 싫은데 일 도와줘라? 자유의지 제한하는 것임

영적 가르침이니까 싫어도 받아들여라? 자유의지 제한하는 것임

사생활, 취미, 연인관계, 성적성향등을 도리에 맞게 고쳐라? 개소리임

이걸 네가 배우지 못하면 넌 이러이러하게 나쁘게 될거다? 사기꾼임

세상이 망할 거니까 때를 준비해야 한다? 미친놈임

4. 영성 스승이라는 거 자체가 강 가짜임

이게 현실임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기꾼이거나, 정신이상자입니다.

미워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스승으로 삼아보세요!

일터와 직장동료를 스승으로 삼아보세요!

자기 내면의 신성을 찾아 스승으로 삼으세요!

끝

5. 소중한 것을 살해해서 버렸다는 착각

오늘 뭘 날인가?

나 댓글 다는데 쓰레기 이야기 하고 있네? 무지 비관적이고 막 ㅋㅋ

뭐야 왜이래? 싫어서 수행하려고 앉았더니

집단무의식장에 분리감이 풀려나고있어 이건 또 처음이네 ㅋㅋㅋ

솔직히 차원상승 따위 진짜 있어봤자 그렇게 깊게 닦아줄수는 없다고

기껏 물질계 짙은 밀도 정도 연하게 해주는 정도겠지

세상을 없애버릴것도 아니고 지구가 당장 뭘 금성처럼 아스트랄행성이 될것도 아닌데

(된다고 채널링에선 그러지만 난 글썸다 안믿김 ㅋㅋ 된다고 해도 백년은 걸리겠다)

그래도 이정도라도 예민한 사람은 힘들 거 같다.

아마 오늘은 그리운 사람, 묻어 둔 옛날 애인 등이 많이들 떠오르겠네 ㅋㅋㅋ

하나님 이라는 단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거 알아.

기적수업도 그 단어 때문에 못 보는 사람들 많고.

물론 기적수업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닌거 알지?

그냥 절대자 개념으로 보면 될 거 같아.

난 견성하기 전에 무신론자였어. 집안이나 주변에 종교적인 배경도 없었고.

자살욕구에 거의 평생 시달렸어. 6살 때부터 거의 매일 죽고 싶었어.

안 죽은 이유는 자살하는 게 너무 비겁한 짓이고 해봤자 쓸모 없다는 걸

왜인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

아마 전생이 있다면 난 자살한 적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

어느 날 마음의 고통이 극한에 이르러서 신을 불렀고 며칠 후 견성이 되었는데 나는 견성 후 1년이 넘게 그 찬란한 모든 게 하나인 아름다움의 상태가 지속이 되었거든

그렇게 찬란한 세상을 보고 살았어도 여전히 난 하나님ی 가깝게 느껴지진 않았어.

내가 보는 세상이 너무 말도 안되게 찬란했기 때문에 신성이 드러난 것인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딱히 관심이 없었어.

난 신, 하나님 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대체했고 그건 받아들일 만 했어.

내가 옛날에 갔던 수행터에서도 ‘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곧 수행터도 도움이 안되고 어쩔 수 없이 내 나름대로 수행을 계속했는데 자질구레한 감정은 거의 지워지고 버림받았던 기억이라든가 충격적인 사건 등 뭔가 큰 거,

계속 반응이 오는 두세가지 기억을 일종의 줄로 삼아 그걸 잡고 계속 수행 하게 되었는데

어떤 기억은 아마 500번 이상 다루지 않았을까? 1주에 1번만 잡아도 10년이면 500번 넘으니까..

하루 종일 하나의 기억만 가지고 계속 계속 한 적도 있고..

근데 무슨 기억으로 무의식에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끝에는 막역한 그리움이 있더라고. 그리움의 강도는 갈수록 적어지긴 하지만.

뭐가 그리운 건지 몰랐어 하여간 그냥 그리워 미치도록 그리워.

혐오감도 분노도 스스로를 한심스럽게 여기는 감정도 전부 바닥까지 가보면 그리움이 있더라고.

뭔가를 버렸는데 그걸 버린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되고 그런거야.

그 그리움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한없이 울어도 풀리지 않는 그야말로
한스러움인거야.

너무 아파서 다시는 들춰 볼 수 없고 너무 아파서 절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것.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아 너무 아프거든. 그냥 모르고 싶어.

그냥 살면서 조상들이 쌓은 한인가보다 하다보면 끝이 있겠지 하고 맨날
작정하고 울었어.

너무 많이 울어서 코피가 닉 달이나 날 정도로 울었어 정말 대단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걸 지워 내니까

부모나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격한 감정, 명예욕 권력욕 돈욕심 이런게 다
사그라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미운 사람도 보고싶은 사람도 없고

세상에 미련도 없고 당장 죽어도 별 아쉬울 것 없는데

그 내가 버려서 너무 아픈 그것에 대한 건 여전히 느끼기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거야.

그게 이제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뭔지 봐야 된다고 고개를 드는데

알고 싶지가 않아!!!

아주 딱 죽겠더라 미쳐버릴거 같더라고

무의식 속에 얼마나 더럽고 난잡하고 잔인한 게 있는지도 다 봤고

연쇄살인마, 고문관, 성도착자, 강간범, 백정, 사형집행인, 마녀, 창녀, 씨받이,
사기꾼, 없는 거 없이 다 봤어

왜 있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유형을 다 지웠는데도 왜 오히려 미쳐버릴 거
같은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옛날 수행터의 이론대로라면 난 아주 평화로워야 되기 때문에

수행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긴줄 알았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
마음은 너무 어둡고 슬펐어 자포자기해서 술에 킁이 되고 싶은 그런 기분 뭔지
알지?
미쳐버릴 거 같으니까 성격도 망가지고 뭘 수행한 의미도 없게 때로는
포악해지더라.

밖으로 나돌았어. 친구 만나고 모임하고 씬타고 연애하고 온갖 취미생활하고
뭘 엄친아교육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스케줄 꽉채워서 별걸 다 배웠지.
당연히 마음이 안정이 될리가 없지 더 타락해버린듯한 기분이었어.
그래도 수행을 했으니 오랫동안 가졌던 습관이 무너지지도 않고
술도 안들어가고 연애 해봤자 빠지지도 않고 괴로워서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싶은데
흐트러뜨릴수가 없어ㅋㅋ 너무 몸도 마음도 건강해 ㅋㅋㅋㅋ 그 와중에
이건 웃기더라

깨닫기 위해 살고 있었는데 다 쓸모 없었다니 살 가치가 없게 느껴졌어.
신성을 한 번 겪어 본 사람은 그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거든.
이십대 때 느끼던 자살욕구가 또 찾아와서 몇 년을 보내고

망가진 나를 추스리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시 수행을 시작했어
뭘 어쩌겠어 하던거 계속 해야지 잘 안되서 졸아도 그냥 방석 깔고 앉아
있었어
내가 소중한 그 무엇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기에 피했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되었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고 사랑하던 것을 내가 직접
버렸다는 넘어서서 '살해했다'고 믿고 있는 마음이었던 거야.

그게 너무 끔찍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한건데 너무 사랑하던건데, 뭐인지는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 우물가에서 뚜껑 열어 보라는 목소리에 죄책감으로 몇 년이나 도망 다녔던
거지.

열면 내가 무참히 죽여서 유기한 시체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던 것을 무참히 토막 내 죽였다는 몸서리쳐지는 공포지.

내가 올린 예전 글 중에 우물가에 대한 지어낸 이야기 있었는데 기억나지?

실은 죽여서 버린 적이 없었다는 건, 버린 자리에 가서 뚜껑 열어 봐야 알 수가
있어.

처참한 시체가 나뒹굴고 있을 거 같은데 열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거지.

경전이나 뉴에이지에서나 채널링 등 영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

지구에 존재하는 대사, 마스터, 아님 뭐 고차원 외계인 존재들이 쓴 책들도
있잖아

근데 아무데서도 무의식 밑바닥에 도사리는 이 '신의 아들을 죽였다' 혹은
'신을 죽였다' 라는 핵심 착각을 알려주는 가르침은 없어.

내가 옛날에 다니던 수행터는 아마 전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올바른
수행법 알려주던 데였을거야.

하지만 거기서도 신이나 죄책감은 한번도 다루지 않았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

나도 백회가 열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런 죄책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원래는 지구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닌 것 같아.

왜 이 가르침이 이 시기에 지구에 주어졌는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고차원 외계인들도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걸 보면 그들 행성에서도 이 가르침은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

기적 수업이나 우주가 사라지다나 심지어 내 글을 보면 졸린다고 그러잖아.
수행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잠과의 싸움이거든 계속 재우려고 그래 ㅋㅋ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라는 착각이 이렇게 대단해.
그전에 백회도 열고 수행 몇년이나 열심히 하고 무의식속에 다른 건 다 본
나도 막상 그거 보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다녔어.
그 두려움 다 착각이라고 누군가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시간은 뭐 어쩔수없지만 그 고생을 하면서 했던 수행이 다 쓸모 없었다는
그 지옥같은 마음의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ㅋㅋ

기적 수업에 보면 우리가 '신의 아들을 못박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거든
우리 자신이 신의 아들인데, 그 신의 아들을 못박은거지
그리고 우리는 신의 아들이 아닌 척 자기가 다른 존재라는 착각
믿음=파동이라는 장벽을 쌓아
하나님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니 엄청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게 벌하겠어?
망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되어 버렸고 천국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지.
기적 수업에는 이 하나의 가르침이 수십차례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어.

명상하면서 하나님, 신, 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부를 때하고
참나, 부처, 그리스도, 같은 단어를 부르는 거는 두개가 좀 달라.
전자는 파동이 확확 깨져나가는데 후자는 그정도는 아니거든
하나님, 신 이라는 단어에는 그 자체의 파워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야 하나님의 세상 속에 원할때 아무 때나 머무를
수가 있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잘못된 믿음을 수월하게 부술 수가 있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나를 들킬까봐 무서워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혼자 있으면 또 너무나 외롭고 그립고 보고싶고

이게 우리 모두가 평생 씨름하는 감정 아니겠어?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내기로 하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6. 실전! 여자에 대한 증오, 열등감 청산

안녕 친구들 요새 자주 만나네 ㅋㅋㅋ

오늘의 주제는 대단히, 엄청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룰 감량이 될 때까지 못 썼다가, 이제서야 다루는 주제야.
이거 쓰는데 버벅 버벅 버프 걸려, 이런적은 처음이야 ㅋㅋㅋ 양이 많지만 잘
청산해주길 바라!!

바로 여자로서의 열등감, 분노 청산인데, 남자들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주제야. 우리 모습이 남자나 여자인 건 껍데기일 뿐이고, 무의식속에는 남자
여자 다 있어. 왜곡된 남성성 청산은 독재자, 폭군, 우월감 청산할 때 많이
나가거든, 그래서 오늘은 왜곡된 여성성을 청산해 볼 거야.

하복부 차크라들에는 엄청난 증오와 두려움, 수치심이 에너지로 뭉쳐 있는데,
이 에너지들은 무의식에서 신(여성성)에 대한 배신, 신을 공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 환영속에서 여성이라는 약자를 타겟으로 공격하는 식으로
환영이 지속되었어.

마녀사냥, 위안부, 성노예, 씨받이 등등... 말 안해도 다 알지?

이 여성성에 대한 수치심을 건드리는 건 성욕, 수치심, 열등감, 두려움, 배신감 등 하부차크라 속 무거운 에너지를 모조리 건드리는 거고 이걸 감히 건드리지도 못해서 산속 도인들이 지혜없이 지식만 쓰고 도통을 못한 경우가 많거든 달리 말해 제대로 풀면 큰 진보가 있을만한 주제이지.

상위 차크라 갖고 명상하는 거 위험하고 하면 안된다고 누누히 말했잖아?

아스트랄게 접신해서 정신 망가질수있다고, 제3의 눈, 송과체 이런거 집중하면 안된다고 여러번 강조했어. 그저 두려움, 수치심, 분노같은 감정만 풀면 몸이 알아서 다 열어주는 거고, 상위 차크라라는 의도적으로 조절하려고 해봤자 인간의 껍냥으로는 뭐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

때가 되면 절대계에서 눈에는 안보이는 빛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다 열어주니까 신경도 쓰지 마. 양심이 살아 있는 인간신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거지, 무당같이 되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니까 또 강조하고 넘어감.

아래의 글들을 하나씩 천천히 마음으로 느껴보거나 말해보고 이중에 상대적으로 마음에 걸리고 기분이 더러워 지는 것들을 붙잡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면 돼.

남자든 여자든 아래의 어구들을 보고 말해볼 때 열등감, 혐오감, 증오심, 한심한 마음, 성적 수치심 등 올라오는 감정은 다 청산하면 돼.

어떤 문구를 보고 분노나 더러운 감정이 느껴지면, 그건 여자로서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분노부터 느끼는 거야. 그래서 분노를 막 청산하다보면 열등감이 느껴질거고, 분노만 계속 올라오고 열등감 안느껴진다면 이런경우는 열등감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거니까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여자라서 비참하다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노력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엄마, 아내, 여자친구에 대한 악감정도 올라올 텐데 그것도 토해내. 풀다보면 여자에 대한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 삶에 엄마가, 여자친구가, 아내가 이런형태로 나타났구나 하는 걸 깨우칠 수 있을거야.

특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때 남동생이나 오빠에 비해 차별받은 기억 있을거야. 그런 거 많이 풀어야 해.

본인이 남자라면, 여자라고 상상해서 열등감을 느껴도 좋지만, 그게 잘 안되면, 내가 남자지만 여자들에게 느끼는 열등감을 청산하면 돼. 여자들에게 열등감 느끼니까 여자들에게 분노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노를 쏟아낸 뒤에 여자와 관련된 열등감을 표현해서 있는 걸 보고 버리면 돼.

살면서 예쁜여자에게 거절당했거나, 거절할까봐 찢러보지도 못했을때 느낀 열등감, 내가 마음 뒀는데, 나보다 잘난 남자에게 간 여자를 봤을 때 열등감, 배신감. 엄마나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걸 알았을때의 충격과 배신감, 분노라든가, 엄마나 아내에게 목줄 죄어진 것처럼 잡혀살아서 창피하고 화나는 감정 등 자신이 남자라서 여자에 대해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올려서 인정하고 버리면 돼.

남자에게 여자는 그냥 여자모양의 인간이 아닌, 어떤 이상적인 신성이 육화한 존재, 날 심판할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괜히 의식하게 되고, 남자로서 자부심을 내세우게 되는데, 남자라면 누구나 여자,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어. 그걸 잘 찾아봐.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남자는 여자에게 그거 숨기려고 폭군 노릇을 하게 돼.

이제부터 예시 써줄건데

좀 더 감정 올리고 싶다면 여자는, 이라는 단어를 딸년은, 계집년은, 맘충은, 보지는, 된장녀는, 한녀는, 걸레는, 성괴는, 등등 기타 여성비하 단어로 시작해봐.

요새 분열, 갈라치기가 너무 흥해서 이정도로 그닥 올라오지 않으면
여혐 커뮤니티 찾아가서 글들을 보며 수행하면 돼. ㅋㅋㅋ

여자는 힘없고 무능해서 쓸데가 없어.

여자는 머리가 나쁘니 시집이나 가.

여자는 교육 안시켜도 돼. 넌 남동생 학비나 벌어.

너 오빠한테 밥 차려줘라.

여자는 하찮고 배우지도 못해서 무식해.

여자는 차별 좀 받아도 돼. 그게 자연의 이치야.

너 천박하게 옷차림이 그게 뭐냐? 창녀같은 년.

여자는 성적 대상이야. 좀 데리고 놀다 버리면 돼.

너 이 식모같은게? 가서 밥이나 해.

여자는 섹시한 게 최고지.

저 여자 생긴 걸 보니 몸뚱이 막 굴려서 한 몫 잡은 게 분명해.

넌 여자가 왜 그렇게 못생겼냐? 시집이나 가겠어?

저년 저거 성형빨로 남자나 꼬시고 다녀.

여자는 고분고분하고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제일이지.

여자는 애낳는 기계야.

위안부는 돈 벌려고 제발로 간 거야.

여자는 다리나 벌리고 있으면 돼.

저 여자애 자빠뜨리기 쉬워 보이네.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정신 차리지.

니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남자한테 꼬리치고 다니라든?

저년은 남자가 없으면 못 살아.

댓글보면 수행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있는거 같아서 점잖게
적어봤음. 감정 실어서 연기하듯이 표현해보면 몇번 반복해보면 점점 더
올라올거야.

본인이 여혐 커뮤니티 같은데 다녀보고 확 올라오는 짧은 문구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줘 ㅋㅋ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7. 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하늘에 반짝이는 변치 않는 별과 같다.
그것은 드높은 천국에 놓여 있기에,
천국 밖에서는 그것이 거기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영원을 통해
고요한 순백 속에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그것이 거기 없었던 적은 없다.
그 빛이 어두워지거나
전보다 덜 완벽했던 적도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이 빛을 아나니,
아버지는,
영원히 높이 들어 올려져
단단히 박혀 있는 별을 안전하게 품는
영원한 하늘이시기 때문이다.

땅에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빛의 완벽한 순수와는 무관하다.
하늘은 별을 부드럽게 품어
하늘과 땅 사이 만큼이나 먼

완벽한 곳에 두었다.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거리나 시간 때문이 아니다.
우상을 구하는 자는
별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없다.

모든 우상 너머에
'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주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다.
창조주가 그것이 거기 있음을 알듯이
그것도 창조주를 안다.

네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겠는가?
천국의 아들은
천국에 그의 마음이 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하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너는
너의 실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667)

8.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래 동동님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호오라 오랜만에 이런 댓글 달았네?’ 싶어서 가져와서 새 글로 올려봅니다. 무언가 갈수록 끼어들어서 교정하거나 설명하기를 안하게 되다보니 말이 적어지네요. 다들 넘나 훌륭하게 잘해주고 계셔서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나는 하나님에 의해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내가 있고, 이 둘은 같은 것이며 순환관계이기에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내 실체를 기억해내는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사랑의 마음을 낼 때, 즉 이타심을 낼 때, 누군가를 위해 행복해 할 때,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듯하게 느낄 때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이지요.

세상에 대한 모든 관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이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사건 관념 사람에 대한 모든 상념 - 세상에 대한 모든 의견 판단 주장 감정 느낌 까지도 모조리 하나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임의로 만든 내 (왜곡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장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만드신 분인 하나님에 의해 생각되는 것을 허용할 때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임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며, 시간이 환상이기에 그리스도로서의 나는 이미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을 지각하지 않으려 고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기에, 이는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기억이며 그리스도임을 일시적이나마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되살리기를 계속 한다면 그 기억하기라는 행위는

자생력을 가지게 되며, 그리스도가 아니고자 하는 내 고집을 몰아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장벽을 칠 때, 왜곡된 생각(파동)을 마구 던지고, 내가 막 던진 그 생각을 내 것 아닌 척 하면서 그걸 왜곡하며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또 던지는 짓을 반복하며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이는 엄청 피곤한 것이며, 갈등을 계속 하면 괴롭고 지치잖아요?

무의식적이라서 내가 인지 못하는 생각 느낌 감정 판단 주장 즉 세계관이라는게 있고, 의식적으로 내가 인지하는 지금의 언어화 된 생각과 몸의 느낌이 있습니다. 의식으로 인지 가능한 것을 먼저 버리고, 무의식을 의식화 해가며 버려야 하는데, 무의식이란 자기 방어이며, 방어를 해제해가면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환상이 필요하며, 양파 껍질 벗겨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 대신 생각하시는 것을 허용하면, 이때 나는 더는 내가 만든 내가 아닌 원래의 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의해 생각되는 존재가 되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에, 내가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파동 던지는 짓 끊임없이 하지 않고 고요하게 침묵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피곤하거나 괴롭고 지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은 천국을 구현해내며, 천국에 있음을 일시적이거나 기억하게 됩니다. 천국에 있음을 거부하지 않는 이 상태는 일시적이거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충만하기에, 파동 던져 장벽 치는 짓을 할 필요가 없음을 점점 더 기억해내게 되지요.

9. 가족이 나를 원망할 때

디스코드에서 검색어 뭘 쳤다가
과거 대화인데 눈에 걸리네요
도움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

강 자신을 잊어버려.
그러면 자동으로 자신에게 관대해짐.
근데 넘 잘하고 있어서 뭐

자신을 잊으라고여
그거 그냥 믿으면 되여??

아니 봉사를 해야지. 섬김.
너의 삶에서 봉사 해야 할 (돌봐줘야할) 사람이
가족으로 나타났자나?
그게 섬김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거.

나도 가장노릇 했었거든. 억울하자나 때로는 왜 내가?
걸리면 주로 그거 땀에 걸리자너 내가 이러케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인정 못받지? 이거자너 주로. 내 마음 좀 알아 달라는데
나도 사람인데 그 정도를 좀 못 해주냐?

나만 베풀고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하다는 소리만 듣고
심지어 원망을 당하고.

근데 그 원망 나올 때 있자나? 가족이 나를 원망할 때
그때가 찼이야. 그거 나오면 내가 잘 하고 있다.

거꾸로임. 애고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

나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계속 돈 줬다 그랬자나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것저것. 근데 어느날 여행가서
새벽에 잠을 못자고 엄마가 말야 막 일어나서 설치시더니,
가슴을 막 치고는 술 먹은 사람처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원망을 마구 쏟아내는거지.

너 때문에 내가 자립을 못하고 니 돈 받아갖고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산다.
미칠 노릇이지.
만일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야.
근데 이성적인 판단이 항상 중요해.

상대가 뭐라고 감정적으로 나오든 간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 말이 헛소리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내가 그 말에 동요하는 마음
그걸 죽여버리면 그만이거든.

근데 나 자신을 불신하기 때문에
저 말이 내게 중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내 죄책감때문에 정말그런가? 이렇게 여기게 됨.

아 근데여 해장님.

그거 저말 헛소리다 하고 넘기면 그거 청산 되는거에여?? 괜찮아여??

넘기는 게 아니고 헛소리를 헛소리로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죽이면 돼. 사람이 헛소리 할 수 있거든?
생각을 일시적으로 잘못 할 수 있단 말야.
근데 그게 그냥 안 넘어가지려고 해.
따지고 싶고 괴롭고 싶자나.
그 말이 정말인가? 생각하고 싶자나.

근데 속에 막 다글다글 카르마가 덩어리진 게
올라와야 해결할게 보이거든?
엄마는 실재하지도 않고 있는 건 에너지 흐름 뿐이고
엄마는 그 에너지 흐름의 체스말일 뿐이야.

그니까 내가 나름대로 잘해왔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만일 제대로 못하면 그런 게 보여지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예고가 거꾸로 생각하게 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소리를 듣는게 분명해.
이러거든?

근데 아냐. 때가 되어서 진심을 보는거야.
그때 내가 동요해버리면 시험을 통과를 못 하는 거지.
나 자신이 설정한 내가 행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시험이야.
시험 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단한 의미는 아냐.
그냥 약간의 허들 같은 거지.

근데 해장님 내가 다 포기하고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했잖아여.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엄마가 고생했다고 그러셨어여.

밥상 차려 드렸더니 그래서 좀 놀랬어여.

응. 뭐 잘하려고 하는 놈 있자나?
지가 수행 하려고 하는 놈. 그놈이 죽어야돼.

에고가 지가 수행 하려고 악 쓰거든.
그래서 그냥 마음 놓아 버리면 돼.
눈앞에 상황이 좋아야만 한다.
수행 했으니 평화로워야 한다.

이런 마음 있자나?
그게 지금 현재를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자나.

눈앞에 있는 거 어차피 환영인데 어떻게 보이든
내 본질에는 위협이 안 되거등?

나중엔 다 평온해 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평온해 지려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겉보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경이 안 쓰이는 마음자세가 되어야만 겉으로도 평화로워져.
이게 역설이지.

엄마가 고통스러운 거 보면 내 마음이 괴롭자나?
그게 애착이거등. 자기가 고통스럽기를 선택하고 있다면
그걸 존중해줄 수 있거등. 근데 내가 옆에 붙어서 막
어떻게든 해야 하고 내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애착이 마음을 써.

누군가가 실수하기를 택하고 괴롭기를 택할 때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근데 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 하는 거지.

왜 실수하면 안되는데?

괴로움이라는 걸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실수 하면 안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된다 고쳐야 된다 라고 인식하는 건데
환영이 좋든 나쁘든 다 환영이거등.

그렇게 치면 연쇄살인마나 강간범은 영영 구제 못받을거 아녀?

근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꿈속에서 뭘 하든 꿈이라고
꿈속에서 사람 마니 죽여도
깨면 나는 꿈하고 완전 다른 존재자나.

아니 왜 그런 꿈 꿔지? 해보지만
꿈 꾸는데 뭘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거도 아니잖어.
꿈은 원래 황당한 거.

글서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난당할 때
아무리 애써도 비난 당하는 그게 눈앞에서 벌어질 때,

에고는 자꾸 속이려고 해.

이거 봐 해도 해도 안되잖아 너 뭔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이러는데, 그 반대야. 좋아해야 돼.

아 이제야 숨겨진 게 올라왔구나 이게
내가 무서워서 안 보려고 하던 진실.

나도 그때 그거에 아무 응대를 안 했거든.

그냥 혼자서 설치게 뒀어. 에너지 소진 되니까 주무시더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서가 변경 됐는데 환경이 훨씬 좋아졌어.

10. 감정청산과 가혹한 마음

오늘 티움정원 굶어와봅니다.

감정청산이 잘 안 된다고 하니 그거 얘기 해보면

일단 감정청산을 시도를 하되, 자신을 위로하는 거부터 왕창 마니 하세요.

다들 그게 안 되는 거 같아.

자기자신에게 늘 가혹하게 해와갖고 남을 불러서 용서 하려고 해봤자 잘 안돼.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는 거도 마음으로 잘 안되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

실제로 뭐 맛있는 요리를 해서 꽃이라도 한 송이 꺾고 주변 말끔하게 치우고
의식 치르듯이. 상상 말고 진짜로 말이야.

아니면 뭐 욕조에 입욕제 풀고 음악 틀어놓고 목욕을 하거나 뭔가 자신을 위한
거.

자기를 사랑하기는 커녕 거의 학대하는 수준으로 살고있거든 거의?

근데 뭐 감정청산이 잘 안되지 가혹한 마음만 쓰고 있으니까.

자기라고 알고 있는 그건 자기 가 아냐 실은

마음 입장에선 다 남이야. 남도 남이고 나도 남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진짜 나면 나한테 잘 해 줘야지 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해.
마음은 실은 이 내 몸이 내가 아닌 걸 알아.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거랑 타인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게 똑같은 거야.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 기억 떠올려보면
그 힘들었던 때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 일 자체 땀에 힘들었던 게 아니거든?
내가 나를 너무 극렬하게,
죽어야 될 형편없는 쓰레기로 여겼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내가 나를 응원해주면 뭔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거든.

그니까 일단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서 떠올려서 제일 기억하기도
싫은 때.
들어가서 뭘 하냐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했구나”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 자기 자신에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근데 그게 분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때 내가 한일은 너무 잘못된 거라서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진단 말야?
그런 자기 마음이 좀 분리가 되고 그게 좀 이상한 거라는 걸 알려면
몸이 좀 순환이 잘 되어야 돼.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단
말야.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 하라고 하면 자신은 내팽개치고 몇 달이고 남들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없는 냉냉한 마음 갖고

남을 용서 하려고 해봤자 뭐.. 잘 안되지.

처음부터 보려고 하면 힘들어. 처음엔 그냥 기억을 재구성만 해.
처음부터 한번에 다 해버리려고 쑥 다가가 봤자 힘들어.

사람이라고 쳐봐. 그 사람 죽도록 미워한 담에 20년 내버려뒀어.
갑자기 나타나서
“야 화해하자”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음?

‘이 새끼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야 내가 화해해서 좋아지려고 이러는 거야” 라고 해봤자...
‘저 미친놈이 날 이용하려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지.

침엔 강 덩덩하게 그 일을 그냥 바라봐.
마음속에서 재구성 해봐.
재구성 여러 번 하다 보면 내 식대로 마구 기억을 왜곡해 놓은 게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그거 갖고 비난 하지 마.
그냥 봐.

그렇게 여러 번 돌려보면
처음의 충격이 좀 잦아들고 수치심이나 이런거도 좀 잦아들어서 볼 마음이 나.

그러면 그때 시도를 좀 해보는 거지.

기억이 연속적으로 말끔하게 구성들이 되어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은 기억이 안 나지.

근데 4,5세부터 지금까지 쪽~ 기억을 돌렸을 때 잊거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어야 돼. 자기 카르마 있자나요.
카르마 지워서 자유를 얻으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
근데 전생에 접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내 수중에 있는건 내 삶 뿐이자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과거는 이미 끝난건데 왜 그거 들이파냐고.

아 뭐 전생이나 후생이 다 보여
그럼 안 들이파도 되지
근데 내 수중에 있는게 그거뿐이잖아? 그럼 그거부터 해야지.

그리고 과거가 다 끝나서 뭐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나는 누가 뭐라고 하면 열 받거든?
그러면 과거가 이미 끝난 게 아니잖아
과거를 다시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들이파지 않으면 자유를 못 얻어요.

자기 인생을 영화처럼 돌려봤을 때 내 인생 같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멀끔하게 다 지워져야 해.
기억도 안나는 게 없어야 되고 앞뒤 인과관계도 다 이해가 되어야 돼.

자기 인생에서 감정을 좀 지워내면 그때부턴 전생이 보입니다.
전생에 충격적인 사건들 떠오르면서 청산이 돼요.
그 모든 게 아주 세세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기억나진 않아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왜 이렇게 살았고
하는게 다 납득이 될 정도로 다 기억이 나.

기억은 커녕

뭐 현실도 마찬가지로 눈앞에서 뭘 일이 나고 있는데 그냥 거의 외면하고 살거든?

누군가의 힘들고 아픈 말 따위 듣기도 싫어.

내 꺼도 아프고 물어 봤는데 남 따위 알게 뭐람?

대부분 이런데 어떻게 내면을 파겠어요.

그리고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정청산을 해.

다들 너무나 조급한 거지 그니까 드문 드문 여기 찢다가 저기 덮었다가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딱 정하세요.

수행 왜 해?

왜 하는 지를 일단 자기가 알아야 되고 할 건지 안할 건지 정해서 안 할거면 그냥 편하게 살고,

할 거면

안타깝게도 인생이란건, 뭘 좀 제대로 해봐야 왜 하는지를 알아.

맛을 봐야 그게 무슨 음식인지를 알자너

요리사 되고 싶다는 마음 먹으려면 음식 마니 먹어보고 그게 즐거운

사람이어야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냐.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거는 안할거면 집어쳐라 이게 아니고

귀한 인연으로 여기 모였는데 앞뒤가 안 맞는 순서를 갖고 자기를 이상하게 대하며 닥달 하지는 말라 이거지. 순서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 드리는 거고, 좀 마음 편하고 효율적으로 가시라고 알려 드리는 거예요.

수행을 왜 하느냐 이건 사실 한마디로 자유롭고 싶어서 이자나

어디까지 갈 건지는 아무도 강요 안해 자기 자유지

근데 아무튼 우린 가슴속에

“이건 아니다.” 이것 만큼은 명확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자나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이러는 건 아니자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든 아무튼 자유를 향해 가봐야 하는데 기억부터 먼저 구성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어린시절 그때가 제일 영향이 크고

아까 카르마 이야기 했는데

시간이 환상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 카르마의 축소판이거든?

집약판 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자기 인생에서 굵직한 거 하나 지우면 전생의 비슷한 일들을 한꺼번에 다 지우는 거예요. 전생만이 아니라 후생도 같이 지우는 거.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야.

글서 이룰테면 20살 이전까지 머릿속으로 흐름을 쭉~~ 영화 보듯이 침부터 쭉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해보세요.

집중력이 약하면 이게 그냥 가만 앉아서 안돼. 글로 쓰세요 나는 그렇게 했었거든. 글로 써보면,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은 아무도 안 볼 거거든 그거? 근데 안 써집니다. 솔직하게 안 써져요. 그러면 그 저항 자꾸 내려놓으면서 쓰는 거지.

쓰는데 자신에게, 야 이거도 못하냐? 이러지 좀 말라고.

“괜찮아 너 용기 있어” 라고 위로 하면서 하세요.

수행 하면서도 그 자기 학대 하는 마음 계속 쓰거든? 습이라 갖고

수행한다는데 너 이거밖에 못하냐? 등등 어찌다 짜증 나면 아 사람이니까 짜증 날 수도 있거든? 근데 짜증 좀 났다고 자기 자신한테

너는 수행 했다면서 이 정도 갖고 짜증을 내고 어찌고 이러지말고요 ㅋㅋㅋㅋ

내가 하는 건 다 잘했다

이거 좀 외우시고

어제보다 내가 아주 눈꼽만큼만 잘해도 그거 잘한겁니다.

어제보다 내가 못난 짓 했더라도 그래도 괜찮죠 사람이니까.

로봇이 아니자나 내일 또 잘하면 돼.

근데 또 나태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점은 뒤봐.

누구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건 있으면 좋지.

계속 자기비난하고의 싸움이야 수행은. 자기비난하는 그 습을 자기를 사랑하는 습으로 돌려 놔야 되니까.

자기가 뭘 짓을 하든 와 좋다 잘했다!! 라고 내면에서 반응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상상을 해보셈 얼마나 좋고 안심 되겠음??

자기가 뭘 짓을 해도 자신에게 짜증도 화도 안난다

이게 바로 자유거든.

그냥 내가 한건 다 잘했다

이게 자유야.

그니까 자기비난을 자기가 마니 하고 있다 라는 거부터 인식을 하셔야 되고

기억을 재구성 하는 계획을 좀 세워보기.

계획을 막 철저하게 세울 필요는 없는데 뭘 앞으로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인식은 좀 시켜주세요. 여러 번 떠올리다가 어디 그냥 마음 놓고 산책같은 거 할때 문득 떠올라요. 애쓸 때는 기억 안 나다가 잠에서 깬데 기억 나는 적도 있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좀 재구성이 됐다,

아직 좀 구멍 여기저기 나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대충 원지는 알겠다 싶으면 그때 감정 청산 좀 시작 해보는 거지요.

기억을 재구성 하면서 다시 그 때 같은 상처가 들쭉서지잖아. 그때 좀 청산이 돼요. 자꾸만 그게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상처인데, 나는 자유롭고 싶으니까 이거 놓아준다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위로 해주고, 제발 자신에게 가혹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인정해주기.
내면의 자아를 적대시하지 말고.

에고가 갑자기 막 사라져서 천국이 오고 이거는 영성계에서 퍼뜨린 대 사기극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 자기 자신은, 자기가 다 갈무리 해서 건강한 자아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니까 자기를 좀 아픈 사람으로 대하시고 환자한테 욕하면 안되겠죠. 잘해줘야지.

11. 참수행의 어려움

참수행의 어려운 점은 에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에고란 자신이 고집하는 판단, 의견, 주장의 덩어리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인격이죠.

에고가 한번에 죽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에 바른 마음으로 지낼 때 조금씩 조금씩 죽어 잊혀지고,
혹은 삶에 계기나 큰 결심이 있을 때마다 크게 여러 번에 걸쳐 죽게 되지요.

예고가 죽으면 반드시 자신의 세상이 변화합니다. 인식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합니다.

큰 부분이 죽으면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이 크게 변하기도 합니다.

예고가 죽는다는 거는, 지각이 아직 뒤집히지 않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실상 <나 자신> 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아는 나> 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갖 종교시설이며 산속에 도인들 구도자들이 많은 영성에 관심 많은 나라에 참수행을 이뤄내는 사람이 그토록 드문 이유는 <내가 아는 나> 를 없애기가 그토록 힘들기 때문이지요.

나 자신이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 마음으로 자살하기

이게 참수행입니다.

내가 아는 나의 의사로 내가 아는 나 가 죽고,

진짜 나를 아시는 분이 자기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내가 나 를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 는 그대로 두고 내 속이든 겉이든 다른 것을 찾아 그것들을 없애고 있는지?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를 계속 바치는 자세로 살면 그만인데요.

매사 온 힘을 기울여 정성 들여 나를 바치는 자세로 살아보세요.

뭘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용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용서 하려고 애쓰는 나 가 죽어야 합니다.

나 를 죽이지 않고 용서만 열심히 하시면, 용서하고 돌아다니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연단을 하시기 때문에 나 를 매일 매일 조금씩이나마 죽이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잘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서해대는 내가 생긴다고? 웃기지요?

농담이 아닙니다. 흔한 일입니다.

의식은 아주 정교하며 강력하기에 반복 행동하는 무엇이든 실재화 시켜
버리기 일쑤입니다.

영적 에고, 의식 분리,

심지어 자아가 없어지고 신성은 맛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감각만 남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미친듯이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영성을 추구하면 얼마나 맹렬하게
추구하겠습니까?

추구하는 놈이 죽어야 되는데 추구하는 놈은 그대로 두고 문제거리를 계속
찾아 해결합니다.

내가 아는 지금의 나, 바로 나 자신 이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나> 가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든 밖에 있든 뭔가가 문제다 라고 잡아 수행하려고 하는 그 <나> 가
죽어야 합니다.

내부든 외부든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내부에 있는 것이든 외부에 있는 것이든 하여간
뭔가를 잡아 문제 삼아봤자

나의 본질은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뱅뱅이 돌게 됩니다.

문제 삼아대는 에고가 강화 되거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 의 죽음은 그러면 어떻게 맞이 합니까?

나 를 절대자에게 바치세요.

나 의 의지를 내면의 절대자 당신께 드린다고 고백하세요.

저를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뜻대로 저를 쓰소서. 하고 간절히 고백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물러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대신하소서. 하고
고백하세요.

바닥에 가 닿는 겸허함 가지고 온 마음을 다 바쳐 매일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자를 아직 내면에서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에 굽히세요.

자존심을 굽히라는 소리입니다.

속이 뒤틀리고 배알이 꼴리든 말든 확 굽혀서 마음의 죽음을 맞이하라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든 말든 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나 가 죽습니다.

상대가 개소리를 하든 미친소리를 하든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 교정 하려고 해봤자 내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라는 게 애초에 없기 때문이지요.

있는 게 전부 나의 다른 표현이니 내가 나를 부인하는 꼴입니다.

보이는 건 다 환영물일 뿐이니 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굽혀서 내 마음 닦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친소리 하는 놈에게 굽히기는 커녕

온갖 은혜 입은 은인에게조차 굽히지를 못합니다.

고마운 줄을 모르는 마음이 예고이기 때문이지요.

머리로는 고맙다고 생각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그뿐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니 애초에 고마워 하긴 뭐하러 고마워 합니까?

옛날 이야기에 도 닦으러 혹은 무공을 전수 받으러 가면 산 속에 깨달은 사람
찾아가지요.

이 스승은 성격이 온갖 기벽이 있어서 치우고 있는거 뻔히 보면서 재떨이
뒤집어 던지고

고래 고래 소리 지르고 앞 뒤 안맞는 말 하기 일쑤입니다

이 염병할 노인네 밑에서 수발 들면서 노인네 뒤지기 전에 무공 전수 받을 수
있을까?

매일 속이 썩지요.

이런데도 묵묵히 참고 굽히면서 몇 년이고 버티며 도망 안가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가르침을 전수해 주지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자기 고집 굽히기가 그토록 죽을 만치 힘들기 때문이겠죠.

진리란 도처에 아무데나 공기처럼 있는 것인데

고집이 가득 차 진리가 들어갈 구멍이라곤 없으니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뭘 비워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고집인데 고집인 줄 인식을 못해요.

늘 고집 부리고 살았으니 고집을 고집이라 인식하는 데만 한참 고행을 해야
그게 보입니다.

자신은 그게 고집이 아니라 그저 정당한 생각,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생각, 의견인데 쉽사리 변경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의심조차 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그게 뭘니까?

그게 고집이 아니면 뭘니까?

고집이란 좁은 카테고리에 가두어 둔 의식의 한계지음이며 다른 말로 하면 오만함입니다.

에고의 속성은 오만함이며
오만함을 먹고 살고
오만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만함을 일으키며 끌어당깁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살 때 물이 뭔지 모르듯이
에고와 동화 되어 살 때는 자신의 오만함을 모릅니다.
후안무치함도 모릅니다.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이미 사람이 된겁니다.

제정신이 단단히 실종된 세상입니다.
이 미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참 고생한다고 스스로를 좀 위로해야 할
지경이지만
우리는 이왕 여기 모였으니
온 마음으로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온 마음으로 고마운 것, 받은 것을 세상에 크게 갚는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가슴으로 고마움을 아는
사람 다운 사람, 인간미 넘치는 바른 마음 가진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기교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으로 애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내어드림으로서 그렇게 되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어 봅시다.

12. 갤 사용 설명서 등

안녕 친구들

오늘 글은 세션팀이 아닌 분들 타겟이고
몇몇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간과하시는 것들을 적어 봅니다.

0. 이 갤의 이름은 기적수업 갤러리이지만 사실상 다다와 영혼 계약으로 엮인
분들이 서로를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기적수업은 현재 존재하는 가르침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르침을 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갤에서 교재로 쓰고 있으며, 이곳은 기적수업만을 위한
갤러리가 아닙니다.

1. 사람은 자기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을 일깨워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배란, 신의 빛이 담긴 인간을 말하며 흰 옷 입은 무리란,
자신의 오라장을 정화하여 신의 빛을 지상에 통과시키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지구는 그리스도 의식이 지배하는 행성이 되는 것이 예정 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태어나기 전에 사람은 영혼 계약으로 자신의 환경, 부모, 성격적 특성, 삶의
큰 사건들 등을 알고 옵니다.

그러나 개인적 영혼 계약 말고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한 두 번째 계약서가 따로 존재 합니다. 즉 계약서가 2개인 것으로, 두 번째 계약은 현 시점에 지구에 오는 영혼들에게 대부분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지구를 위해 의식 상승을 하려 노력하되, 집단을 이루어서 일하기로 서약 하는 것이며, 이 계약 조건을 계약 된 방식대로 이행해야만 의식 성장이 가속화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수행해서는 급격한 의식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며, 겉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수행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어울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다다의 글은 그저 영혼 가족 중 파이어니어에 속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미끼일 뿐이었으며, 자세히 써져 있다고 그걸 가지고 수행 혼자 할 수 있다고 여기시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계약서는 보통 영혼 가족들끼리 묶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봉사도 집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은, 이곳은 자신의 소속처가 아닌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곳을 찾으시더라도, 어떤 영적 봉사 집단을 찾으셔서 소속되시기를 권합니다.

영적 봉사는 어떤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그저 의식성장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다수를 위해 봉사하는 길입니다.

3. 연단을 매일 하시면 시간이 한달, 두달, 지나면서 이 두 번째 계약 조건이 서서히 기억이 나시게 됩니다.

자신이 지구를 위해 봉사하려고 여기에 왔다는 자각이 없다면 영적으로 의식 성장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며, 머리로는 의식 성장 하고 싶다고 소망하지만, 가슴으로 느낌과 깨우침이 오지 않게 되니 금새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구에는 아주 많은, 지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연단을 하시면 그 집단에 소속이 되기에 꿈이나 직관으로 메시지를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4. 갠이나 디스코드는 다다의 의식장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다다는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로 어느정도 현실을 조작할수가 있기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지구에서 혼자서는 영적 자각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은 과장이나 비유가 아니며, 말 그대로 갠과 저의 오라장이 동일한 빛으로 엮여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갠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고 어떤 것을 주고 받아가시는지 저에게는 민감하게 인식이 됩니다.

저의 몸과 의식은 일종의 센서이며, 인식이란 단순히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짐을 뜻합니다.

5. 의식장을 구성하는 빛이 강할수록 그 빛은 무엇이든 오는 것을 증폭시켜 돌려주는 역할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갠 활동을 적극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의식성장이 가속화 되는 이유가 이것으로, 남을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는 마음을 쓰시면, 그것이 법칙상 올바르기 때문에 의식성장이 됩니다.

갠에다 원망, 하소연을 쏟으셔도 똑같이 증폭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비관적인 생각, 사람들 힘 빼는 생각은 혼자 간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갠의 의식장 즉 빛은 부정적인 감정을 소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만, 무의식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파동이 나오자마자 증폭되며 이곳의 밝은 빛에 의해 적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본인의 마음에 죄책감이 남게 되며, 무의식중에 갠이 계속 불편하여 자신의 의식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6. 갠이 다다의 의식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다를 불편하게 여기는 한 갠은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은 전기 신호를 방송하듯이 외부로 매 순간 쏘아 방출하고 있으며, 불편함이란, 파동을 외부로 방출하고 있는 상태로, 갠에 파동을 준다면 그것이 증폭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원래의 파동 쏘는 불편함을 없애지 못하는 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갠의 의식장 빛은 거저 가져가서 쓰시면 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파동 쏘아 그것을 막고 있으니, 별반 받아들이지를 못해 의식성장이 가속화 되기가 힘듭니다.

혼자 빛을 방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의 빛 속에 속해서 함께 가자, 말하자면 저의 집을 여러분께 내어 준것과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지내면서 집 주인 눈치 계속 보면 집에서 행복하기가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말투가 좀 딱딱할 뿐이지 권위적이거나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갠에 적응하시고 디스코드 참여하신 이후에는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시는 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부탁 드리는데 다다를 편하게 여기려고 애를 쓰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평생 동안 행복하기를 바라서 무언가를 찾아 오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춘 곳이 이곳입니다.

좀 낯설고 어렵다고 자꾸 자신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하셔야 결과를 얻습니다.

의심이 되면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몇 달 전 글과 지금 글을 찾아 비교해보시고,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는가 파악을해보시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시간과 데이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7. 디스코드 세션팀을 꾸린 이유는 저와, 겔과, 여러사람의 오라장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로 엮어 한마음을 만들면, 무의식이란 공유가 되기에 수행시 의식성장이 가속화되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봄으로서 집단 매트릭스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하나로 마음을 엮어야 했던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으며, 그 방식이 2번째 세션팀부터는 좀 다를 것입니다.

현재의 세션팀의 특전사 개념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멤버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디스코드 서버에서 따로 세션팀을 꾸릴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달에는 다다컴퍼니 어시스트 참여 및 연단을 하시면서 인원이 차서 새 세션팀이 꾸려지면 함께하기를 기대해보세요.

13. 우리 회사 최종 보스는 누구일까?

안녕 친구들

오늘은 대담한 글을 하나 적어볼까...

믿으라고 안합니다 ㅎㅎㅎ 저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건 그냥 보시고 즐기세요 아무도 무엇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해 별로 말을 많이 안해드리니까...

뭔지 더 궁금해하시는 거 같더군요? 한번씩 메시지로 질문을 주시길래..

그냥 까놓고 이야기 합니다.

이 요상한 다다컴퍼니라는 작은 지사는 다국적기업같은 커다란 본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사는 하나님의 회사지요.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리스도 의식을 회복하시면 그리스도 연합체와 통로가 생깁니다.

아직 몸 벗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방식에 한계는 있지만 많은 메시지를 받지요.

연단을 해서 멘탈체를 정화하고 내적인 커넥션이 생기면 회사 교육과정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본사는 사람 눈에 안보이는 영역에 있어서 우린 주로 꿈에서 봅니다.

주로 우리는 지사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저는 가끔 본사에 지시 받으러 불려가지요.

그 본사는 지구와 관련된 하나의 커다란 영혼계약으로 묶여 있고

중요한 시기에 함께 의식성장 해서 지구 전체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 주는데요,
사람들 잘때 아스트랄체로 영혼이 몸에서 나가가든요? 그때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저런 교육을 시켜 줘요.

여러분이 꿈에서 보시는 학교같이 생긴 교실, 강당, 회사 강의, 세미나, 교육이
다 이런거랍니다.

지금껏 지구에서 도 닦아서 몸 벗은 분들이 그 계획에 참여하여 도와주고
있는거지요. 텔레파시같은 메시지가 방송신호처럼 상시 존재하는데
언어적으로 오지 않고, 가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팍팍하게 살면서 가슴을 겹겹이 방어막으로 쌓아 상처
안받으려고 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사람은 드물 수밖에 없고,
무언가 느낌이 와도 원지는 모르고.

그저 무언가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인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영혼이나 수호령 등이 뭘 해야 할지 인도해 줍니다.

이들은 그 고차원적 존재와 소통이 되니까요.

외국엔 영적 자조모임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많은 한민족이라 그런지 여긴 아직 그런 게 별로 없지요.

영성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근데 야구 보면 9회말 역전극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 해 봅니다.

몸 가진 여기는 환영 세상이고 영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요

우리의 본질은 영인데, 영이 혼을 써서 자아를 입고,

그 자아랑 비슷한 그림판 찾아서 태어나는 꿈 꾸며 인간몸도 입어보고

나중엔 다시 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개별체의 기억이 남아있는채로 전체의식으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 개별체의 기억이 남아있는 전체의식인 영의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상위 자아이고, 그것은 시간이 끝난 시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수업에서 기적을 행할 때, 즉 용서할 때, 갑자기 모든 죄가 사라지고 과거가 사라지고 많이 용서하면 주변환경이 바뀌어 버리는 이유가

용서하는 그 순간이란,
시공간을 벗어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라서
이미 끝난 시점에서 회고하고 있는 전체의식인 영의 부분,
즉 미래의 나의 자아의 입장에서 지금의 나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둘이 일시적으로 통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시공간이 환상이니까.
높은 의식차원의 나 자신과 접속이 되기 때문에, 용서를 했을 때 뭉클 감동이 오고 가슴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는 등 신체적인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미지 부여해서 처음에 좀 당황스럽고 어색했는데 왜냐면 이게 지구에서 눈에 보이는 몸 갖고 있는 이상 그 의식수준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게 아니거든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저는 회사에서 선생님인 적이 없고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지금까지는 주로 했던 일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어디 교육장소에 데리고 가서 자리 잡아주는 등 잡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저도 같이 듣는데, 강의를 누가 해주시는지 꿈에선 안보여요 매번 강의 시작하려고 하면 꿈 끝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관련한 꿈속에서 저의 의식수준을 한참 벗어난 존재는 형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뇌에서 그걸 처리할 만한 형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나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사람 형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호객행위 아.. 아니 빠끼 아.. 아니..

똥망똥망한 학생 발굴해서 먼지 좀 털어 준 담에 선생님들에게 인계해주는 역할을 주로 했지요.

이게 역할이 좀 바뀔 거라고 최근에 듣긴 했는데 원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쪽서도 각 단계들이 있고 각 교육과정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마감기한이니, 시험보는 꿈을 여러분이 꾸는 거예요.

스포 없는 이 모험이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앞으로도 자세히 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꿈도 되게 중요한 걸 꺾도 원지 딱 중요한 부분만 지워져 있습니다. 하하하 원지 알고 싶으면 명상을 깊이 해서 알아 내야 하지요.

근데 제가 맡은 일이 거의 그라운드워크라서

상위차원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별 알고싶은 욕구는 없어요

영혼은 다 아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회사는 하나님이 보스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회사놀이 할 수 있게 승인 내려주신 분이시고

회사에 이사진도 있고 사장도 있겠지만.

회사 최종보스! 회장님! 이 있게 마련이겠죠.

즉 회사 만든다고 각종 고급인력들 처음부터 끌어모은 존재 말이죠.

누군지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들어 무척 궁금해 했었죠...

최종보스가 누구일까...

이 일을 꾸민 존재가 누구일까...

지구를 이토록 특별하게 여기는 존재란 누구인가?

회사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 처음 시작한 능력자가 대체 누구일까...

처음엔 예수님일까? 했는데... 왜냐 우리가 예수님 교재 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 지구 오기 전에 최종 리허설 자리를 저는 기억 하거든요.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사회자 역할이었지, 최종보스는
아니었던 말예요?

궁금해했더니 곧 알게 되었죠...

오늘 공개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디코 하신 분은 눈치 채셨을 듯? 호호호

네 바로 이분입니다.

대천사 미카엘



그림 개쩔지요잉
오토케 알았냐고여?

우리 회사 최종보스 누구야 누구냐고!!!! 하고 물었더니

이제야 그걸 알려고 하나? ㅈㅈ~~ 옛다!! 하면서
용단폭격처럼 아무 책이나 펴도 이분이 나오고, 티비 켜면 이분이 나오고,
드러누워 다른 책 펼치면 이분이 나오고, 인터넷 열면 이분이 나오고
하루종일 그만 하라고!!! 할때까지 그랬음 놀리는 거처럼 ㅋㅋㅋㅋ

그래서 명상을 해봤죠...

이후에 일어난 일은 그냥 감동의 쓰나미라 넘어갑니다 .

대충 요약 해보면 으흑흑 회장님 채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바쳐
일할게요!! 정도랄까...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좀 무식해서 이런쪽을 몰랐는데..

알고 나서야 이것 저것 찾아보니까 이분이 성경에 환란기의 영적 전사로
나오시더군요...?

역사적으로 오랜 성인이시고, 용 잡은 분이고, 루시퍼 지옥에
떨어뜨린분이고, 보호에 특화된 천사래요.



저에게는 이런 든든한 큰오빠같은 느낌이랄까...
 재가 나 때렸어 재 때려줘! 뿌엥~ 하면 가서
 네가 내 여동생 때렸냐? 하고 혼내 줄 거 같은

천사인데도 좀 남성적인 느낌, 자비로운... 해결사 같은

자비를 구현하기 위해 주먹이 필요한게 지구의 현실이죠

근데 막상 이분에게 접속을 하면 되게 동심어린 마음이 들고 웃음이 난답니다.

흠 사실 천사란게 뭘 인격이 있는 존재는 아닐테니

그냥 그 의식장에 접속을 하는건데 우리가 사람이니 그 의식장을 사람처럼

느끼는 거겠지요 우린...

천사는 원래 날개도 없대요 형상을 부여한건 인간이겠죠





그래도 멋지다 용 찢러 푸욱 푸욱

그렇지만 영적인 길을 가는데 보호를 요청하면 보호해주는 강인한 존재가 있다는 건 멋진 일이죠
유명한 분이라 이런저런 동상이나 중세 그림이나 성물도 많아요
게임 캐릭터로 그려지기도 하고...

성물 좋아해서 몇개 구경 해보시라고 퍼왔습니다.
진짜 성물은 아니고 레플리카요



영적 존재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도와주지를 못한다고
자유의지에 위배된다나?
좀 이상하죠 그럼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도와달라고 안하니까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천사란 좀 할 짓이 아니네요 몸 가져서 다행이다 ㅋㅋㅋㅋ

이분은 영적 깨우침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을 두려움이 만들어낸 악 이라는
환상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계시는 분이니, 미카엘 대천사님 한번씩 불러
보세요 호호

이런 의식존재들은 우리 생각하곤 다르게 자신의 의식장을 갖다 쓰라고
열어놓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써주고 불러줄수록 더 좋아한답니다.

14. 에너지 기생충 / 뱀파이어 / 악연의 줄을 잘라보자

연단하다 보면 내면에서 힘들어서 올라오는 불만 말고
마치 누가 귀에다 대고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분들 있죠?
자기 몸체에 에너지 뱀파이어 줄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기도 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카엘 대천사님,
천사님의 영적인 칼날로 저의 에너지 몸체에 붙어 있는
에너지 기생충 및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코드를 잘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경험/인연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줄이 잘라지고, 잘라진 불이 불태워지는 것을 마음으로
보세요.

몸에서 플러그 뽑듯 끝 부분이 뽑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 번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연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습이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 어느 선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상위존재에게 부탁드려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그 줄 끊으려고 해
봤자,
자신의 의식은 그 줄을 붙어있게 허용한, 말하자면 좀 아직 덜 깨어난
의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감정청산을 하거나 연단을 많이 해서 정신력을 강화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시고 상위 존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떨 수 없는 징글징글한 악연이 있어도 에너지 코드로 서로 에너지장이 연결된
경우입니다.

상대방과 마음 속에서 하소연을 듣고 용서를 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도 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카엘 대천사님,
천사님의 영적인 칼날로
저의 에너지 몸체에 붙어 있는 악연의 에너지 코드를 잘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 악연을 통해, 고통을 통해 배우기로 선택했던 것이며,
이는 제가 잘못 알았던 것으로, 저는 더 이상 고통을 통해 배울 것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서류 있습니다.

영혼 계약 서류인데, 있다고 알면 마음속에 떠오를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인 경우, 아스트랄계에서 속아서 영혼 계약 맺으신 거라서
사기입니다.

그저 이게 사기라고 인식하고 없애겠다고 결심하시면 없어집니다. 원래부터
사기당한 거라서.

이 서류도 불태워 없애 달라고 천사님에게 요청 하세요.

악연으로 이루어진 인연도 같습니다.

서류가 존재하니, 이제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없애 달라고 부탁 하세요.

이런 서류의 효력이란 어디까지나 자의든 타의든 거부하지 않을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거부하면 사실상 그 서류는 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부한다고 본인은 믿지만 무의식은 거부하고 있지 않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감정 청산을 하셔서 자신이 그 인연을 원해서 끌어당겼다고
인정할 수가 있게되면, 줄 잘라 달라는 기도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대단한 악연을 갖지 않았더라도,
삶에서 여러가지 본인이 원치 않는 관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원하고, 될까 안될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명확한 마음을 하셔야 효과가 있으며,
평소에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을 드시고 운동을 하세요.

원래 이런 줄 자르는 것은 제가 해 드리는데,
겉에 오신 분들은 글 보면 어떤 상태인지 제가 그냥 보면 압니다.
글 쓰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인지 제가 인식이 되어야 뭘 해 드리든가 말든가 하지요.

줄 붙은 거 말 안해도 제가 정리 해 드리고 있으니
딱히 요청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심하지 않은 경우 딱히 말 안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삶이 어떤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되요
그냥 아무 글이나 써도 그분의 의식장이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뭘 해주든 간에
자기 마음의 습이라는 게 있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
본인이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여 자생력을 갖추시면 좋겠지요.

사람의 정신을 잠식하는 이런 에너지 기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금렵구, 포털, 매트릭스 시리즈 글을 참조하세요.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1.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신다 + 소금 1티스푼
2. 전자기기 특히 극초단파, 휴대폰 사용을 줄인다. 잘때는 비행기 모드
와이파이 사용을 줄인다. 잘 때는 셋탑박스 및 공유기를 끈다.
3. 빛명상, 차크라명상, 소리명상 등 각종 명상은 실은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인간을 줄 붙여서 자기 좋은 대로 쓰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인간의 에너지체에는
방어력이 없으므로 그대로 영계 기생충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의식성장을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에너지 기생충 및 뱀파이어가 붙어 있는 사람의 증상

1. 평소 이유없이 피곤하며 특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2. 평소 정신이 멍해지며 소리가 들리거나 빛이나 색깔이 보이거나 누가 말을
걸어온다.
3. 학습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글이나 사람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정신이 혼탁하게 머리속에 구름이 낀 것처럼 느껴져 집중 하기가
힘들다.

4. 내 정신인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으며 한번 분노가 올라오면 제어가 잘 되지 않는다.

5. 성적인 꿈을 종종 꾸고 꿈속에서는 진짜 같고 황홀하지만 깨어나면 온몸에 힘이 없다.

금렵구에서 잘 노시면 이런 증세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 됩니다.
빠른 문제해결을 원하시면 물을 드시고, 연단을 하세요.

15. 꿈이나 현실이나 똑같은 꿈입니다 1

수행을 하시면 자꾸 무의식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꿈에서 많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직관으로부터 힌트나 감정상태를 알기 위해서 기록을 권하는 것이며
잠들기 전에 옆에 노트를 두고 깨자마자 몸을 일으키기 전에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겔 꿈 관련해서 기록을 권하는 것은 세션팀은 세션을 오래 하면서
에너지교류를 하면서 정말로 에너지로 교류하고 엮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서로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고 아스트랄계에서 동일한
장소를 꿈꾸게 되는거고

우리가 꿈 속에서 뭘 하고 있나 함께 기록하면 조각조각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나름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수행하는데 도움도 되겠지요

악몽을 자주 꾸시는 분은, 자기 전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주무세요.
잠들기 직전의 감정상태가 곧 잠자서 가는 아스트랄계의 수준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나 천사를 떠올려도 좋고
그냥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음식을 떠올려서 기분 좋게 하고
자면 좋고요
미래에 나에게 있을 근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면 가장 좋습니다.

현생이 우울해서 괴로운 분 있죠?
우울한 생각을 하도 많이 해온 나머지 즐거운 생각을 하려고 하면 잘
안되지요?
사람의 무의식은 현실창조기계입니다. 투사기, 영사기 같은 거예요.
우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우울하다는 인식을 그만두고 행복하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울하다 우울하다 하면서 우울한 현실 그려내라고 무의식 투사기에 계속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인식을 하냐고 하겠죠.
영혼이, 우울한 일을 빛 이라고 생각하고 빛 **값아야 된다고** 느껴서
우울한 그림판 택해서 태어나서, 우울 한거 겪으면서 카르마 감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나 알고보니까 빛 없네?

빛 있는줄 알았는데 빛 없네? 하고 인식하게 해주는 게 기적수업의 가르침이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없다 없다만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무의식 속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고
없는건데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는 걸 계속 보고 밝혀내야 하니까 수행을 하는 것이죠.

수행 초반에는 번잡하고 갈등, 투쟁상태의 꿈을 많이 꾸니다.
무의식 마음 자체가 갈등, 투쟁이니까 당연하지요.

꿈 속 사건들은 모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나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아스트랄게 가서 놀고 있는 것도 모두 내 내면의 감정상태와 걸맞는 데에 가서 놀고 있는 것이기에,
그걸 실제라고 여기지 마시고 다 무의식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보여준다고 여기시면 되고요

(아스트랄게도 모두 거대한 꿈입니다. 내 가장 높은 자아가 만들어낸 꿈이지요)

꿈 속 등장인물은 역시 모두 내 내면의 감정상태를 나타내주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현생도 꿈이거든요? 내 마음 나타내주는 캐릭터들을 현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꿈의 해석은

<그 사람이 내 내면의 어떤 감정을 대표하고 있길래 꿈에서 그사람으로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걸까?>

를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찾는 꿈 해몽은 수행 하시는 분은 거의 잘 맞지 않습니다.
죽는 거는 좋은 꿈이다 / 뱀 꿈은 성적인 꿈이다 정도만 맞는 수준입니다.
맞는 게 있는 거 같다 싶으시면 청산도구로 삼으시면 됩니다.

꿈 해석을 수행에 접목하면, 알고 보면 되게 뻔합니다
좀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해석 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꿈 속에서

남자가 나쁜짓하는걸로 아니면 무섭게 나온다

-> 내 무의식에서 남자 무서워하는 걸 해결해야 한다는 신호

동물이 나오고 포악해 보인다

-> 내 무의식 속 동물성,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을 두려워하여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

여자인 내 친구가 꿈 속에서 내게 나쁜 짓 하는 걸로 나온다

-> 내 자신의 여성성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내줌, 여성성에 대한 긍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신호

남자분이라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온갖 기억을 청산하라는 신호

선생, 경찰 등 위계질서가 있는 직업인데 부정적인 일 하는 걸로 나온다

-> 내 무의식의 계급의식 청산하라는 신호

성적인 꿈을 꾸는데 기분이 찝찝하다

-> 성 관련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수치심 청산하라는 신호

누가 죽었는데 꿈 속에서 무섭다, 두렵다

->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숨겨 놓은 내 마음속 무의식을 보라는 신호

해일, 물이 무섭게 나온다

-> 물과 관련된 공포스러웠던 전생의 기억이 건드려 지는 경우, 물 관련 공포 청산하라는 신호

등등,

그냥 모조리 내 무의식 보고 청산하라는 신호로 보고 해석을 하시면 수행에 도움이 마니 됩니다.

뭐를 청산하라고 이런 걸 알려주나 생각해보면 사실은 되게 뻔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건 꿈과 현실간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꿈에서 선생님이나 상사가 내게 나빠보이면 계급의식 청산해라 라고 했잖아요?

현생에서 선생님이나 상사가 내게 나빠보이는 것도 계급의식 청산의 신호예요.

현생에서 여자가-여자 가족, 여자친구 등-이 내게 나쁜짓하는 걸로 보이는 것도

내 내면의 여성에 대한 두려움, 부정성 청산하라는 신호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꿈이나 현실이나 똑같이 꿈이라서 그래요.

진짜예요.

청산 하셔서 현생이 바뀌는 경험을 몇 번 해보시면
꿈이나 현생이나 완전 똑같은 꿈이라는 거 깨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생에서 데자뷰라든가,
내 과거 기억이 현실과 다르게 희한하게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을 몇 번 찾아
보시면,
현실이 실은 현실이 아니구나, 이 내가 아는 현실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이 현실 말고 **진 짜 현 실** 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영적 자각을 할 때 비로소 **진 짜 현 실** 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께에서는 <매트릭스 깬다> 라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기존 세상이 가짜가 되고 초라해집니다. 진짜 나와 진짜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고
어떻게 이 단순하고 자명한 것을 몰랐을까? 싶게 됩니다.

왜냐면 그전까지 멀리 있는 줄 알고 찾아 헤맸던 것인데
알고보니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이고
알고보니 내 안에 있었던 것이고
알고보니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당연한 걸 몰랐지?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살면서 한번도 겪은 적이 없는 기쁨이라 많이 울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헤매다가 찾은 느낌이라 감동이지요

이 기쁨이 어떤 사람은 한번에 크게 오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여러 번에 걸쳐서 와요.

에고가 한번에 많이 죽으면 크게 오고, 작게 죽으면 조금씩 오는 거지요.

수행을 의도적으로 해서는 당연히 조금씩 닦이는 거라 잔잔하게 오게 됩니다.

크든 작든 공통점은 가슴이 울리고 감동을 받아 많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16. 꿈이나 현실이나 똑같은 꿈입니다 2

자 다시 꿈해석으로 돌아가서

청산 신호 말고, **청산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는 상징들도 있습니다.

벌레, 어두운 연기, 진동, 떨림

-> 수행을 하시면 잘때 몸에서 에너지 교류가 일어남, 저차원 파동이 나가는 것을 인식중

커다란 벌레, 나방, 나비, 지네, 전갈, 뱀 등

-> 작은 벌레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사라지는 것이 저차원 파동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과는 달리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뜻함

해일, 물이 쓸어가듯이 시원하게 나오고 담담하다

->잘때 몸에서 에너지 교류가 일어남, 저차원 파동이 빛에너지가 들어와
쏟려나가는 것을 인식중

누가 죽었는데 꿈 속에서 담담하다

->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무의식차원에서 내면적으로 담담하게 마주보았음
저차원 파동이 기혈을 통해 버려질 때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많기에 현생에서
일이 잘풀리는 경우가 많음

시간이 지날수록 꿈속에서 갈등, 투쟁, 두려움과 관련한 상징이 덜 보이다가
나중엔 아예 사라집니다. 나타나도 흔적 정도인 느낌으로 심리적 충격은 별로
없이 와요.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 질병, 투쟁을 구경할래야 구경할수가 없게
됩니다.

현생이나 꿈이나 둘다 꿈이라서 그래요.

싸우다가도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안 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막 화 내던 사람인데 나한테는 화 안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수행을 해 주셔야

주변 환경을 자기 마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자 꿈의 해석에 좀 익숙해졌다면.. 현생에서 내눈에 보이는 것들도 해석해
봅시다.

결국 같은 말인데 반복해 봅니다.

현생에서 보이는 실재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내 내면의 어떤 감정을 대표하고 있길래 현생에서 (현생이라는 꿈에서)

그사람으로 나와서 이런이런 성격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걸까?>

<내가 내 내면에서 보지 못한 점을 그사람이 되어 보여주고 있는건데,
내가 내 내면에서 뭘 외면하고 있길래 그 사람으로 나타나야만 하는걸까?>

를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이때 사회적 관습, 고정관념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보세요,

무의식에는 옳고 그름 따위가 없습니다.

죽이고 싶은 욕구가 무수하게 나와도 놀라지마세요.

무의식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인 거고,

이거 들키면 큰일나, 하고 무섭기 때문에 감춰 놓은 거예요.

누가 나쁜놈으로 나와요 내 인생에.

그럼 내 내면에 그 나쁜짓하고 싶은 똑같은 욕구가 있어서,

나는 그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면 난 죽일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짓 하는게 아닌, 저놈이 나한테 그런짓 하는 그림
그려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내 내면에 똑같은 욕구가
있다고?

보통은 이거 인정하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영혼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번갈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죽음도 삶도 다 꿈이에요.

이건 농담 하는게 아니라, 수행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와 진짜로 다 꿈이네? 하게 됩니다.

자기 몸도 다 꿈의 현현이에요.

이것도 농담 하는게 아니라, 수행 하다 보면, 자기 몸을 내려다보면서,
와 환장하겠네, 이거 진짜로 다 진짜가 아니네? 다 환영물이네?
하고 인식을 하는 때가 온답니다.

그 인식이 오랜 시간 텀을 두고 여러번에 걸쳐서 옵니다.

에너지 몸체가 겹겹이 여러개가 있고 그 몸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
고차원적인 인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몸체에 통하지는 않는
거지요.

여러번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의식확장을 하게 되는 거고

어디까지 빛이 통했느냐에 따라 그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며
세상이라는 환영을 의도대로 바꿀 수 있는 정도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뭔가 대단한 경지처럼 영성판이 워낙 어그러져있고
우리가 그냥 몸뚱이 육체라는 세뇌를 많이 받아와서 이게 뭔가 특이하게
여겨지는 건데

사람이 다 같은 능력 가지고 있어요

다 그 능력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매커니즘을 좀 알고 돌이킬 필요가 있을 뿐이죠.

글이 길었는데 마무리 또 여러 글에서 한 이야기 반복 해봅니다.
기적수업의 핵심이 죄책감의 해제 같아요.

내가 나쁜게 아냐 니가 나쁜거야! 라고 탓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무의식을
파고들어가서

(무의식에 접근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연단을 하라고 권하는거지요)

〈와 저놈이 죽일놈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내 안에 똑같은 욕구가 있네?
내 욕구가 저놈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거구나!〉

라는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더이상 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욕구는 그저 환영으로 그려온 것일 뿐이며 버릴 수 있는 착각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욕구 심지어 살인욕구라고 할지라도, 죄책감 갖지 말고,
나쁘다고 자꾸 숨기고 판단하지 말고, 자꾸 인식하고 인정해주고 드러내어
밝히면

그저 알고보면 욕구일 뿐입니다. 사라지게 되며

처음에는 그것이 내면의 욕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감정청산부터
시작해서

삶에서 보이는 사건 사람에 대해 쫓아가며 청산하게 되지만,
나중에 집중력이 우수해지면 그 환영의 재료가 되는 에너지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에너지 몸체 속의 얽힌 에너지를 풀어서 현실화를 막게 됩니다.

또한 애초에 그 욕구, 저놈이 죽일놈이다 라는 욕구를 왜 가지고 있는가? 를
파헤쳐 보면

그게 결국에는 신을 모욕하고 싶은 욕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기적수업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의 문제 : 권위 문제〉입니다.

권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참조하시길
끝!!

‘엄마, 나 사람 됐어’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herelight>